

2025년 벙커1교회 걸어온 길



- 0104 제주항공참사 서울시청 시민분향소 조문
- 0105 오광석 최새론 전임전도사·이용수 교육전도사 임명
- 0106 한국기독교성공회 주최 산상알파성회 참석
- 0112 공동의회, 고양예배당 이전안 가결
(63명 참석 동의 58, 반대 4, 기권 1)
- 0119 본신 60대 남성 회복 위한 기도회 (한림대성심병원 앞)
- 0126 김용태 천주교 대전교구 신부 주일예배 강론
- 0131 2025년 교우 등록 마감 (총 95명 신청)
- 0131 교회 십일조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1,458,064원)
- 0225 교회 및 김용민TV 이전 모금라이브 (101,045,745원 모금)
- 0228 교회 십일조 : 전태일의료센터 (1,212,600원)
- 0302 고양예배당 이전 첫 예배
- 0309 공동의회, 2대 장로 양미혜 집사 선출
- 0309 탈핵주일 연합예배 참가 (서울 향린교회)
- 0331 교회 십일조 : 영남권 산불피해 돕기 (1,107,333원)
- 0403 윤석열 파면을 위한 특별기도회 개최
- 0413 씨뿌림예배
- 0431 교회 십일조 : 평화나무 공명선가감시단 (1,253, 400원)
- 0505 부처님오신날 맞이 흥대선원 답방
- 0511 정방남 원로 추대
- 0511 영화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 상영회
- 0518 상주 첫 수확 기념 온 교인 공동식사
- 0525 서울북노회 남녀청 체육대회 (의정부 신한대)
- 0531 교회 십일조 : 미안마 지진 피해자 (1,169,119원)
- 0603 21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공동시청
- 0608 임당예배, 도올 김용옥 선생 초청 설교
- 0608 내란에 맞선 그리스도의 의인들 제막식
- 0622 인문 사회학적 섬서읽기 시작 (이용수 전도사 인도)
- 0630 교회 십일조 : 은총의숲 사업은총의 숲 1,545,983원
- 0706 감자 수확
- 0707 이현철 장모 이난경 집사 모친 고 안정임 권사 위로예배
- 0713 흑서기 벙커틴(청소년) 예배공간 임시 이전
- 0731 교회 십일조 : 수해 피해자 (1,570,330원)
- 0801 벙커틴(청소년) 여름수련회(경기도 가평)
- 0809 벙커업(어린이) 여름수련회(인천 강화)
- 0810 필리핀 빈민선교 활동 보고 (사공세현 티클로반 광명교회 목사)
- 0815 전교인 일일수련회 (강사 구미정 이음교회 목사)
- 0831 교회 십일조 : 여성안수추진행동 (1,539,857원)
- 0928 수원평화나비 위안부 문제 연대 특강 (이혜정 집사)
- 0930 서울북노회 가을 강북시찰회
- 0930 교회 십일조 : 필리핀 사공세현 선교사(1,157,021원)
- 1010 청년부 수련회(인천 강화)
- 1019 전교인 대상 비폭력대화 진행 (박지호 갈등전환센터장)
-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현장예배 (서울 녹사평역)
- 1031 교회 십일조 : 옥바라지선교센터 (1,379,900원)
- 1113 청년주일 예배 (신비롬 목사)
- 1116 추수감사주일 감장 및 식사나눔 행사
- 1123 양미혜 장로 취임예배 (한신대 서울캠퍼스 컨벤션홀)
- 1124 민에스터 장로 이명
- 1127 제3회 아메리카원주민학살 참회 기도회
- 1130 공동의회
의안 1 : 카라반 구입 (29명 찬성, 1명 반대) 가결
의안 2 : 추수감사주일 추석연휴 다음주일로 변경 (17표) 가결
- 1130 교회 십일조 : 인권연대 (1,830,100원)
- 1205 새해 운영위원회의 (강원도 양양)
- 1221 카라반(명칭 : 유레카) 입고
- 1224 크리스마스 전야 예배 겸 음식나눔
- 1225 6개교회 연합성가대 예배 ‘어울림’ (한신대 서울캠 예배당)
- 1231 교회 십일조 : 교회개혁실천연대

2025년 12월 28일
통권 13권 52호
성탄절 1주일

2025년 벙커1교회 표어
κόσμος 코스모스
세상 질서 조화(요한 3:16)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벙커1교회 주제성구 아모스 5:24

섬기는 사람들
목사 김용민 · 장로 양미혜
전도사 오광석 최새론 이용수

교회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화랑로546번길 16-12)

010-9341-2012
bunker1churchweb@gmail.com
bunker1.me
 누룩TV

벙커1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소속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애쓰고 있는 개혁적 개신교회입니다.

창립기념일 2012년 6월 10일



새 교우 등록을 원하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좋은 것을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8:28 (북한 성경)

주일에배순서

찬양

인도 오광석 전도사
보컬 이난주 집사·김자경 교우·이혜정 집사·이진영 집사·김성윤 집사·김경순 집사
연주 정진호 집사·박이정 교우·이용수 전도사·장옥상 집사·이종원 집사

사회 이경현 집사

| | | |
|--------------------|--------------------|--------|
| 징울림 Slet prayer * | | 정방남 원로 |
| 신앙고백 Creed * | 병κε교회 신앙고백 | 다함께 |
| 찬송 Hymn |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다함께 |
| 기도 Prayer | | 임성균 집사 |
| 독서 Bible reading | 고린도후서 4:7~10 | 사회자 |
| 설교 Sermon |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 김용민 목사 |
| 광고 News | | 사회자 |
| 파송곡 Closing Song * | 교회 | 다함께 |
| 축도 Benediction * | | 김용민 목사 |

■ 병κε교회 신앙고백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복이 하나 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 성경 고린도후서 4:7~10

7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8 우리는 사망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9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10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 오늘 설교 요약

이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직이 공격받던 상황이다. 성공과 능력, 외적 영광을 중시하던 고린도 문화 속에서, 고난과 약함을 안고 사는 바울은 실패한 사도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며, 고난은 사도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음의 방식임을 밝힌다. 복음은 본래 십자가와 부활, 즉 고난을 통과한 생명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고난은 복음을 가리는 장애가 아니라 복음이 현실에서 증명되는 통로라는 것이다.

이어 대화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고난 없는 삶, 성취와 승리만의 인생'이 무엇을 놓치는지로 확

장되었다. 그런 삶은 인간의 한계, 타인에 대한 공감, 존재 가치의 근원을 망각하게 만든다. 고난이 없는 삶에서는 존재 가치가 성취에 묶이지만, 고난의 한가운데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불들린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쓸모가 사라져도 가치는 사라지지 않으며, 존재의 가치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인식이 형성된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망할 것을 두려워하지만, 바울은 "싸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한다. 고난의 시기에 중요한 것은 의미를 급히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망하지 않는다'는 존재의 안전을 붙드는 것이다.

고난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미래를 앞당기려 애쓰기보다 오늘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가 강조되었다.

특히 "고난에서의 승리"는 반드시 돌파나 역전이 아니라, 버터내는 것 자체일 수 있음이 분명히 제시되었다. 버티는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들린 상태이며, 십자가에서 끝까지 머무신 예수의 모습처럼 성경적 승리는 존재를 잃지 않는 데 있다. 결국 대화는 새해를 맞아 더 강해지려 하기보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복음의 승리라는 설교적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성탄절, 대형교회에 안 간 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성탄절, 25일)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있는 따뜻한 곳입니다.

이에 이번 일정도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님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목사님들도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 이 대통령 부부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오찬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자율배식을 받았으며,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해인교회 주변에 있는 계양구 노들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님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습니다. 계양구 노들담 수녀원은 설립 이래 장애인 복지관과 교육 시설 운영을 통해 소외계층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

송구영신예배순서

31일(수) 오후 11:00

사회 김경은 집사

| | | |
|---------------------|--|---------|
| 찬양 Praise | | 오광석 전도사 |
| 징울림 Silent prayer * | | 정방남 원로 |
| 신앙고백 Creed * | 병거교회 신앙고백 | 다함께 |
| 찬송 Hymn |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함께 |
| 기도 Prayer | | 정방남 원로 |
| 독서 Bible reading | 스바냐 3:17 | 사회자 |
| 설교 Sermon | 너의 가운데 계시니 | 김용민 목사 |
| 기도회 Prayer ensemble | ① 건강한 나라 건설 위해 ② 거룩한 교회 회복 위해 ③ 단단한 나와 가족 위해 | 최새론 전도사 |
| 카운트다운 Countdown | | 사회자 |
| 파송곡 Closing Song * | 선한 능력으로 | 다함께 |
| 축도 Benediction * | | 김용민 목사 |

김목사와 책읽기

기독교의 본질



포이어바흐의 '기독교의 본질'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의 '기독교의 본질'은 단순히 "신은 없다"고 외치는 무신론적 조롱이 아

닙니다. 그가 겨누는 초점은 신앙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며, 특히 이미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온 신자들에게는 뼈아픈 거울이 됩니다.

포이어바흐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사랑, 정의, 선함이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품고 있는 욕망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그 가능성을 하늘에 투사하는 순간, 우리가 삶 속에서 발휘해야 할 책임이 예배당 안의 감동으로 소비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대형교회를 떠올려보면 그의 비판이 낯설지 않다. 축복과 성공, 간증과 성취가 신앙의 표지가 되는 현실 속에서, 사랑과 정의가 개인의 삶을 풀고 나오는 힘이 아니라 신에게 기대고 위탁하는 정서로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신뢰의 언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을 유예하거나 포기하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정의와 불의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행동하려는 이들에게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며 발목을 잡는 자, 혹시 나는 아닙니까? 포이어바흐는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습니다. 신앙이 하늘을 향할수록, 인간의 손과 발이 멈춘다면 그것은 과연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존 교회 신자에게 그의 메시지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건물, 프로그램, 헌신, 봉사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그 모든 활동 속에서 인간을 향한 사랑과 책임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묻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노래하면서 구체적 이웃의 고통에는 무감각하고, 정의를 외치면서 구조적 약자의 현실에는 침묵한다면, 우리는 신을 높이는 동안 인간의 가능성과 고유한 존엄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포이어바흐는 신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인간의 본모습을 회복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실은 네가 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니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손과 발로 살아내라.”

이 메시지는 교회를 떠나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인간다움이 회복되는가를 묻는 초대입니다. 이미 신앙의 길을 걸어온 대형교회 신자에게, 포이어바흐는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낳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멈춰 서는 순간, 비로소 신앙은 다시 인간의 삶 속에서 숨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6년 새해 **벙커1교회** 포어


네페쉬 (נֶפֶשׁ)

'숨 쉬는 존재', '영혼 생명', '자신/인격체'
창세기 2:7 "조엄한 나를 발견하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7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נָשָׁם, 네사마)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네페쉬)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고유하고 존엄한 살아있는 인격체임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나' 자신, 즉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 전체를 가리키므로, 기독교인이 자신의 삶을 수동적으로가 아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나'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네페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인간 존재를 나타내어, 주체적이고 존엄한 삶이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일상의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주일학교 오전 11시 

| | |
|---|---|
| 벙커업 (어린이) 1층 우리지금만나눔 마태복음 26:36~46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오광석 전도사 | 벙커틴 (청소년) 1층 유레카 느헤미야서 7:1~4 믿음의 친구 최새론 전도사 |
|---|---|

새벽성서읽기 월~금 오전 5시 

| | |
|---|-------------------------------|
| 월 | 출애굽기 21장 법1 |
| 화 | 출애굽기 22장 법2 |
| 수 | 사무엘상 13:15~23 책임지는 왕 |
| 목 | 마태복음 9:1~13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
| 금 | 마태복음 9:14~26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

(월·화) 김용민 목사 (수) 최새론 전도사
(목·금) 오광석 전도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일꾼

주일 박민호 PD · 수요일 김시현 PD · 새벽성서읽기 박종욱 집사

벙커1교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방법

지하철 3호선 삼송역 ③번 출구
→ 도보 1.9km

마을버스 삼송역 ③번
→ 075A탑승 (DMC역 방향)

용현마을사거리 하차

시내버스 1·4호선 서울역③번

3호선·GTX A 연신내③번

→ 703탑승 (탄현역 방향)

→ 동산고등학교 하차

벙커1교회 계좌

헌금 신한은행 100-033-864027

특수목적 신한은행 100-035-696724

교회소식

주일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새신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상훈 A(시주)님과 정성원(우미)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웃는 낯으로 '처음 오셨군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분과 함께 맨 앞자리에 오셔서 공동식사까지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카라반(유레카)에서 벙커틴 예배 14일에 입교된 카라반(유레카)에서 오늘부터 벙커틴(청소년) 예배가 시작됩니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교우들께서는 교회에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주의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31일 송구영신예배 31일 수요일 예배는 당일 밤 11시 송구영신예배로 대체합니다. 마치고 한 교우분이 10kg 크기의 떡국용 떡을 헌물해주셔서 이것으로 만든 떡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보다 앞서 밤 10시에는 JTBC '장르만 여의도' (25일)에서 빛났던 김용민 목사의 축복 기도 신공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고 있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김 목사가 최선을 다해 중보하겠습니다. (31일 밤 10시 유레카로 오시면 순서대로 일대일 기도로 진행합니다.)

평화나무 후원행사 결과 사단법인 평화나무 후원행사가 있었고 당일까지 3000만원이 모금됐습니다.

새해 운영위원 임명 새해 운영위원으로 예배부장 이상훈A(시주) 집사, 사회부장 한인수 집사, 친교부장 한그루 집사가 섬깁니다.

운영위원회의 오후 1시 올해 마지막 운영위원회의가 오후 1시 유레카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새해 벙커업, 벙커틴 사역자 소개 새해 1월 18일부터 평화나무 국장을 지냈고 2023년까지 이미 벙커틴을 섬긴 바 있었던 이경은 전도사가 벙커틴을, 3월부터 20년간 CCC에서 대학생 선교사역을 담당했고 카이컴에서 안수를 받은 박성운 목사가 벙커업을 맡습니다.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섬겨준 오광석, 최새론 전도사께 마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새해 갱신 등록 안내 기존 교인의 갱신 등록이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교인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세요. 우리 교회는 거품 교인이 없는 교회가 되고자 매년 이런 번거로움을 요구합니다.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성탄연합성가대 영상 이번주에 업로드 벙커1교회 등 6개 한국기독교교장로회 교회가 함께한 성탄연합성가대 공연 실황이 이번주에 업로드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현장 녹음에는 전문가인 장옥상 집사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감동 누림을 바랍니다.

 **신한은행** 100-033-864027 **벙커1교회**

| | | |
|------------|--------|------------|
| 12월 교회 십일조 | 12월 안내 | 지난주 헌금액 |
| 교회개혁실천연대 | 1남교우회 | 4,660,693원 |